노동권연구소 기획워크숍_능력주의와 공정성담론, 왜 문제인가

능력주의의 기원과 작동원리
: 연대의 파괴와 능력주의 물신성

제갈현숙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01
자기계발 권유 사회가 낳은 개인

02
능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

03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04
복합평등과 공과의 분배원칙

-01-
자기계발 권유 사회가 낳은 개인

01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2013)

- 머리말: 지금 이십대들이 보여주는 삶의 지향이나 행태는 획일화된 외곬으로만 치달은 나머지 살벌한 경쟁 자체가 '모범적인 삶'으로 바뀌어 있다. **사회가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사회생활로 이해한다.** … 오히려 학력차별(학력위계주의)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더 열심이고, 자기계발서를 인생 최고의 경전인 듯 떠받들며 안으로는 **극단적 자기관리의 고통에 피가 마르면서도 밖으로는 사소한 경쟁우위를 위해 어떤 차별도 서슴지 않는 걸 '공정'하다고까지 여긴다.** 도대체 무엇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걸까?
- P19~20: 시사문제에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던 학생들조차 이 이슈, 정확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요구도 아닌 정규직이길 희망하는 것이, 이들 보편적인 이십대 대학생들에게는 인권의 범주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이 아닌 셈이었다.
- P21: 이들에겐 나름의 분명한 논리가 있었고, 그런 만큼 확신도 강했다. 핵심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데, 그런 고생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생각,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02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p35~36: **낮은 사회적 연대의식에는 자기계발 시대의 그림자가 일종의 '밥그릇 싸움'의 형태로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걸까?** 그래서 '나도 노동자가 되니까 정규직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정규직 자리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받아들인 것일까?
- P76: 노력이 더 많은 쪽이, 즉 남들보다 시간관리를 더 잘 해온 사람이 사회적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급의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의 근거가 정당하므로, 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차별도 정당한 것이다. 이걸 뛰어넘는 요구가 나오면 이십대들은 의아해한다. … 이유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난의 일차원적인 원인이 **개인의 '노력 부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p82~83: 자기계발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십 대의 눈을 만들어버렸고, 그 이십 대의 눈은 곧 자기계발서 자체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십 대 스스로 그 시각에 갇혀, 결국은 다시 자기계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십 대가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 싫어서다. 이것이 자신을 자기통제적인 자기계발로 몰아붙이게 하고, 덩달아 '시간관리'에 대한 신념은 더욱 강화되며, 이 신념은 **타인을 평가하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다.

03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첫째,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 P91: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모든 건 자기 할 탓이라는 자기계발 논리에 길들여진 결과**이다. 자기계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고자 했다. 고통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현상에 반응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A가 아파할 때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이겨낸 B가 있다면 A의 고통은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하고, 사회적 요인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 … 이십 대들은 십중팔구 **'지금 내가 힘든 건 힘든 축에도 못 끼는구나'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 취업준비 어렵다는 하소연은 한 순간에 '입 닥쳐야 할 징징거림'이 된다. 이는 자연스레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렇게 고통의 비교 법칙이 이십 대를 통제한다.

둘째: 편견의 확대 재생산

- P93: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더 강화된다. 기실 '공감'이란 단지 함께 느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권장된다. 그래서 타인의 상황을 깊고 넓게 이해할수록 당연히 타인을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일컬어 '공감대가 넓다'고 하지 않는가

05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셋째: 주어진 기존의 길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 P96: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자기 편견을 강화해온 이십대들은 주어진 길만을 가는 데 익숙해진다. 문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만을 정도라 이해하고,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 P99: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라는 모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는 개인들을 정치적으로는 과거보다 보수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생활 측면에서는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좀 더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른 아이' 캥거루 족들을 많이 양성할 것이다.

- p165~167: 학벌이라는 개념에는 한국 사회의 집단문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키워드인 공동체성·연고주의 등이 연계돼 있다. 공동체성에 기반한 과거형 학벌은 그 집단에 속함으로써 얻을 긍정적인 효과가 미래에 존재하기에 그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한다. …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가 최우선하니 동문을 챙겨줄 여유도 없다. … 그렇다고 학력주의·학벌주의가 사라졌을 리는 만무하다. 나와의 차별화를 위해 남을 '밀어내는'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용하다. 여기선 무턱대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설명이 필요하다.

06

레나타 살레츨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2014

- 자기계발서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안녕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개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
- 불확실성의 **시대에 긍정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본질적으로 재고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를 은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
- 개인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느끼게 될 때, 또 긍정적 사고가 사회적 부정의의 결과로 겪는 불행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될 때, 사회비판은 점점 더 자기비판으로 대체됨
- 자기 계발서와 관련해 결정적인 점은 **분명히 분명한 효과가 없다는 점.** 이런 일련의 책들은 불행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통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함. 자기 계발은 그것이 완화한다고 하는 바로 그 부족감과 편집증을 강화함

- 02 -
능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

01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체제

위기에 대응했던 한국 사회의 방식은 개인주의
김미영(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 자기 힘으로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자립과 자조의 도덕은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져 저마다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해 옴
- 적대적 경쟁 마당에서 ‘실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만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수용됨. 능력과 성공은 물신화되어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시장도덕 속에서 유일한 가치로 추구되기 시작함(강화됨)
- 급변했던 경쟁체제 강화의 환경 아래서 작용하는 대중의 꿈이나 마음의 습관은 능력주의로 담는 것이 가장 적절함. 능력주의는 상당한 동의를 얻어 실행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에 관철되는 규범적 원리. 그것은 발전주의의 개인 규범화, ‘육화된 신자유주의(김홍중, 2009)’의 행동규범

02

■ 능력주의(meritocracy; 업적주의) 추상적 정의

- 능력자에 의한 지배. 플라톤의 철학자 왕에까지 소급할 수 있는, 현명한 자에 의한 완벽한 통치의 꿈의 현대판
- 능력(자)에 의한 무능력(자)의 지배. 무능력(자)은 콕 집어 언급되지 않으나 능력(자)의 배경 혹은 반대짝으로 가정되고 구성됨. 요는 모두가 (똑같이) 유능하지는 않다는 점. **불평등은 상당히 전제되고 용인됨. 능력에 따른 불평등만이 현대인이 수락하는 불평등**
- 지배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능력'에 달려 있음. 성공한 자를 선망하든 실패한 자를 깔보든 한 사회 안의 사람의 위치가 '능력'에 따른 것이라 믿는 한 지배는 헤게모니적으로 이뤄짐
- 그러한 '능력'의 소재지는 개인임. 계급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만이 능력 있거나 없음. 능력주의는 개인을 신민이자 주체로 호명함
- 그 개인은 능력주의적 인간임. 즉 능력주의 체제가 완결되어 있다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 삶의 전략과 생활의 지침을 짜는 존재임. 무엇을 믿고 집단에 의탁한단 말인가. 계급도, 자유결사체도, 가족까지도 적대시하는 개인주의가 실행됨

03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능력주의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94

○ **지능(I.Q)+노력(effort)=능력(merit): 새로울 게 없는 이 명제를 정식화**

- 개인의 능력이 유일한 잣대로 산업사회 이후 정실주의, 뇌물수수, 상속 등의 자리를 대체함
- 능력주의의 정당성은 선발이 기회의 평등과 오로지 개인능력에 의거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설명됨. 능력주의는 인간을 구래의 신분적, 가족적 결속과 구속으로부터 떼어내 개인 단위로 풀어놓고 *국가가 일반의지와 보편이익을 대변*하여 각각 동등하게 고려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것. 그 요체는 국가이고, 국가의 일반 의지는 교육에서 구현됨. 능력주의 교육은 능력주의 사회를 지탱시킴
- 탈산업 사회는 논리상 능력주의 사회. 지위 차별과 소득 차별은 기술적 숙련과 높은 교육 수준에 근거를 두고,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입직할 기회조차 없음

04

■ 영의 의도와 달리 진보적 이념으로 수용된 계기

- 사회정의의 주요 원천으로서 교육기회를 강조하는 것,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의 최선의 지표로서 사회이동성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Dench, 2006) →열린 계급 없는 사회라는 새로운 비전에 연결됨
- 국가 주도적 사회정의로 통할 수 있게 됨. 지능이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동당 활동가 사이에서 교육 접근의 국가 통제가 영구혁명과 같다고 믿어지게 됨. 지속적인 사회이동을 증대시킬 수단을 갖고 있는 국가는 새로운 [지배] 계급의 형성을 막을 수 있고 개방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정의의 영원한 샘물로 남게 됨

⇒ 영국 노동당이 능력주의 환대: 혁명에서 개혁으로, 다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이데올로기로, 다시 대중의 꿈과 신념으로의 지속적인 퇴각과 연결됨. 이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전화이자, 진보정치의 현실적 딜레마이기도 함

⇒ 마이클 영은 귀족정, 민주정에서 착안해 최선자(aristos)에 의한 지배나 인민에(demos)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자들에 의한 지배 확립을 담아내기 위해 착안한 개념. 오늘날 민주주의는 단진 염원일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국민이 아니라 현명한 소수의 지배를 유지함. 귀족주의 정치나 부를 바탕으로 한 금권정치가 아니라 재능에 따른 진정한 능력주의 정치가 시행되고 있음. 마이클 영은 역량은 냉혹한 과학이고, 재능의 관료화라고 생각하며 혹평의 차원에서 착안함

05

능력의 맥락, 능력의 물신성

셰이머스 라만 칸. 2011..『특권』

○ **불평등은 그 성격이 공정하다고 여겨진다면, 좀 더 참을 만한 것이 됨**

- 과거 배제됐던 이들에게 점차 문을 열고 있음에도 그러나 어떻게 불평등은 그 동안 더욱 심화되어 왔나?
- 미국 1967~2008: 평균 가계소득 약 25% 증가. 소득 상위 5%의 가계 소득 68% 증가. 상위 1%의 가계소득은 323% 증가. 소득 상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증대의 비율과 집중도는 급격하게 증가됨
- 엘리트 교육 기관들은 예전보다 더 개방화 됨. 이 개방성을 다양성으로, 그리고 다양성을 인종적 다양성으로 이해됨. 그러나 문제는 계급임. 부잣집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대학에 못 감

06

- 1940년 하버드대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 총장: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로운 출발점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적 사명으로 선언. 그러나 재능에 따라 엘리트가 선발되는 자연 귀족정을 염두에 둔 선언이었음
- 자격 없는 엘리트를 몰아내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요소로서 능력 있는 엘리트, 즉 조건의 평등을 자리잡게 함. 이에 부잣집 도련님 집합소에서 사회 전반 재능 있는 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노력

  →그러나 능력(실력, 성과, 실적)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님. 대단히 맥락 의존적
- 능력을 통해 사회적 연줄이나 지위 등을 중시했던 구습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속성으로 대체한 것처럼 보임⇒ **능력(주의)의 물신화**
- 엄선된 기술관료적 도구로 측정된 성과, 이외의 다른 요인(인종,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한 차별 시정 조정 같은 정책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거나, 이미 부유한 자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를 정당화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함
- 노력과 성취를 내세우는 **능력주의는 결과의 차이를 사람들이 만든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른 산물로 보이게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분, 차별점을 자연적인 것으로 만듦**

07

공정이라는 착각

마이클 센델의 능력과 공정

능력주의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가?(김선욱, 2021)

1. 재능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부모에게 혹은 하늘에 감사할 일이지, 자신의 공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후에 쌓은 실력에서 재능 부분을 뺀 나머지가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나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실력이 사회의 요구에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정 재능이 사회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뒷받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핸드볼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처럼 노력을 기울이고 피땀 흘리며 연습을 해도 사회의 주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당대 사회의 선호도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주어지는 데, 이는 우연적인 것이다.

3. 명문대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학력을 갖추고,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에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가 마련해준 좋은 환경, 예컨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 사교육의 기회 등이 뒷받침되어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타고난 지능도 큰 몫을 한다. 그러니 명문대에 입학한 것을 오롯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만 환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많은 경우 부당하다.

-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능력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소질을 잘 계발하여 발휘하는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함. 능력은 소중하지만, 능력만을 중시하여 사회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사회적 효용성 및 생산성에 따라서만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됨
  ⇒ 능력주의와 공정사회라는 두 이념이 결합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는 믿음은 착각(공정하다는 착각) ⇒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승자에게는 오만함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오만감과 굴욕감이 정당한 감정이며, 사회적 대우 역시 정당하다고 가르침

- 능력주의 사회는 불행한 사회임. 도덕성이 파괴되고 연대감에 뿌리를 둔 사회적 부조와 연대가 존재하기 어려움. 오롯이 개인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됨
-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졌으니, 그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됨. 사회적 열광을 불러일으킬 재능을 갖지 못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 되고, 농구가 아니라 핸드볼 능력을 가진 것도 자기의 책임임 됨→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 **자유주의의 강화**
- 좋은 학군에서 살지 않고 낙후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또 일을 해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도 본인의 책임이 됨. “부모 잘 만난 것도 자기 능력이야”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
- 센델의 대안: ① 직업과 일에 대한 존중. 사회 내 다양한 직종들이 상호적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사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② 사회의 모든 영역과 다양한 일들이 그에 적합한 존중을 받는다면, 이는 좋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향하도록 작동하게 될 것, ③공동선이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말함. 경제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해야 함

03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01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

우명숙, 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 불평등이 보상의 차등적 결과라면, 공정성은 그러한 차등적 결과의 합리적 근거
→ 불평등 연구가 차등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
→ 공정성 연구는 차등적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들이 아니라, 차등적 결과가 어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러한 기준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 데 관심

⇒ 공정성 연구에서는 불평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 공정한 것인가를 평가할 근거가 합리적 또는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함
교환이론가인 호만스가 정립한 분배공정성 이론에서는 상호관계에서 '투자와 이익, 또는 기여와 보상의 정비례'가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불평등의 기준으로 제시됨→ 공정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이환(2010) 경인 지역 노동자를 대상(2008년)으로 형평, 평등, 필요의 원칙으로 임금공정성 분석: 자유주의자(시장원리 지지)는 형평을, 개혁주의자(평등 지지)는 평등을, 보수주의자들은 필요를 더 지지함.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형평의 원칙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02

공정성의 원칙과 능력주의

- 공정성 연구에서는 분배원칙 중에서 형평의 원칙이 공정성 개념에서 중심. 동시에 형평, 평등, 필요라는 세 원칙을 주로 언급→ 그러나 왜 형평이 중심적인 공정성의 원칙이 되었는지, 공정성 개념의 다차원성을 언급하지만,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공정성 개념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특별하게 주목 하지 않음
- 반면, 형평의 원칙이 말하는 능력주의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 분배원칙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능력주의라는 분배원칙은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바라봄 →능력주의라는 형평원리가 지배적인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현상을 비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분배원칙이 능력주의가 됨
- 능력주의 분배원칙의 문제점: ① 기회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데, 능력주의는 현재의 불평등한 지위를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기 때문, ② 성공은 능력만이 아니라 우연한 요소, 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면 능력주의는 모든 성공을 설명하지 못함

03

공정성의 원칙과 능력주의

- 능력주의는 **신분에 따르는 사회질서를 비판했던 진보적인 원리**임에는 분명했지만, 능력주의를 누구나 실현할 수 없음에도 현재의 불평등한 보상이나 지위체계를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분명함
-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능력주의는 능력 또는 노력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가정. 이때, 능력 또는 노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무엇을 능력으로 보느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 사회에서는 교육수준, 숙련, 기술, 전문성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지만, 분명 잠재력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능력으로 정의하게 됨
  - 주로 자본사회에서는 이 잠재력이 노동생산성과 같은, 기업의 이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인가라는 잠재력으로 평가되는 경향. 그러나 개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협소함
  - 능력주의에서 능력에 따르는 보상은 불평등의 정당화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매우 협소하게 평가하며, 그것만으로 사회적 보상의 공정성을 논하게 되는 편협함을 낳을 수 있음

04

공정성의 원칙과 능력주의

■ 능력주의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태심(2020)연구

-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을 덜 선호함
- 능력주의가 주요 가치 체계로 작동할 때, 개인들은 불평등 '문제'에 둔감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불평등이 재분배의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게 됨
- 결국 능력주의의 수용은 재분배 정책의 선호를 줄이게 됨. 능력주의와 불평등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남

■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분석: 이병훈 연구(2017)

- 본인과 부모세대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봄. 그런데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구소득의 위치가 높을수록 기회불평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 객관적 개인 상황과 주관적 계층지위가 기회불평등 인식과는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학력자일수록 기회불평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 그만큼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평가의 간극이 클 수도 있음

- 04 -
복합평등과 공과의 원칙

01

복합평등과 필요의 원칙

■ 월저의 복합평등론: 능력과 공과를 동일시하거나(하이에크, 밀러) 이를 구분하지 않고, 능력이란 약화된 공과로 보는 월저

- 능력을 일자리의 자유교환 원칙, 공과를 그것을 견제하는 비시장적 분배원칙으로 보유. 여러 사회재의 분배가 각자의 원칙에 따라 되어 각 영역에서 불평등은 용인하되, 한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이 가중되는 것(전제, tyranny)은 막자는 취지. 제시된 분배 원칙은 자유교환, 필요, 공과원칙
- 불평등을 줄일 필요원칙: 안전과 복지라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회재를 공동으로 마련해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의 원칙. 사람마다 욕구의 우선성과 정도 차이 존재, 역사나 문화와도 상관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필요대상인 재화는 상품이 아니다(Needed goods are not commodities, 1983)". '필요'의 정당성이 개인이나 모든 인간존재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격과 공동체 성원의 자존에 의거. 즉 사적 이익의 계몽적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 가치의 추구

02

분배의 원칙과 공과

■ 공과원칙은 사람과 재화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해 말하자면, 불공평한 대우를 하게 됨

- 정실주의(nepotism)는 허용되거나 도덕적으로 요구되기도 함. “사적인 개인들 혹은 집단들에 의해 정당하게(혹은 부당하지 않게) 규제되고, 반드시 ‘공정하게’ 분배될 필요는 없”는 일도(Walzer, 1999: 268) 존재함
- 능력주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자연스런, 그리고 인간 역사를 통해 사회를 결합시켰던 행동 원칙—가족, 친구, 같은 종교인, 과거에 자신에게 잘 해준 사람 등을 편애함 — 을 제쳐 놓으라 요구하는 것(Miller, 1999: 198)
- 연고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이러한 특수주의는 위험할 가능성이 큼. 힘 있는 자들의 패거리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강자는 지역적 장벽이 없는 글로벌 시장을 원하는 거대자본에서 보듯 보편성을 추구, 반면 공동체주의는 약자의 철학이 됨⇒ 자유주의가 자랑하는 자율성과 자립만을 강조하겠는가? 강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게임에 ‘평등하게 기회를 줘’ 모든 이를 몰아넣어야 하나?

03

분배의 원칙과 공과

■ 능력주의의 외부에, 다소 주변적으로 공과가 통용되는 영역을 확보하고 유지함

- 그러한 직업의 존재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권위에 제한을 가한다(Walzer, 1999: 268 ~ 269; 고딕 강조는 인용자).
- 프티부르주아 세계, 노동자 자주관리, 정치적 후원의 예. 친족을, 노조원을, 정당 조직원을 선호함은 정치적 선발이고, 국지화된 선발이며 때에 따라서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동료의 선발
- 정치적 선택이라 함은 집단적 선택이고 민주적 선택—해당 공동체 성원의 민주적 토론에 의한 선택이라는 뜻. 이는 대체로 마을, 공장 같은 작은 단위에서의 자주관리, 자율경영과 친화함. 그럼으로써 '공과'는 능력주의가 없애고 배격한 사회이동의 우회로를 회복하고 시장적 가치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논리를 제공

04

분배의 원칙과 공과

■ 공과는 전반적 일의 세계에 교정책으로 작용

- 새로운, 다변화된 '능력' 개념과 결부된 여성과 농촌과 비공식부문의 일이 가시화되고 재평가될 수 있게 함
- 시장에 덜 포섭된 그런 일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저임금의 여성노동화에 불과했는데 '공과'로 적극적 가치가 부여된다면, 대안경제를 떠받치는 가치체계가 든든해 질 수 있음
- 연공서열이나 정년보장은 능력주의의 대척점이고 비효율과 경직성의 예가 됨. 말하자면 그것은 공과에 의거한 배분으로 해석됨. 한 기업에 오래 머물러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공과 있다고 본 것. 그렇다고 무능력을 보상하는 것은 아님. 유능한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무능한 만년 과장으로 남지만, 해고되지는 않음. 무능력을 상주지 않지만 척결하지도 않음. 그가 상품이 아니라 인간임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해석함⇒ 이 부분이 세대간 갈등 및 이해의 대척점

05

분배의 원칙과 공과

■ 능력주의를 탈신비화

- 능력을 공과가 아니라 자유교환이라는 원래 영역에 귀속시킴. 이는 두 의미를 가지게 됨

① 시장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하는 마당을 내준. 그들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이 담고 있는 자유와 자율, “자신들의 독특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구체화하면서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이며, 창조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두뇌와 성격을 활용하고”, “노고의 의무와 성취의 자긍심을” 누리는 사람(Walzer, 1999: 204). 그러나 시장은 공과를 이전하지도 보상하지도 않음. 시장성공에 윤리적 보상까지 더하기를 그쳐야만 함

② 능력주의는 모든 일자리가 공직 같은 선발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제한해야 함. 선발의 탈신비화가 일어나면 공직 같은 일자리는 공과가 아니라 약화된 메리트인 자격조건에 따라 분배된 것에 불과함을 보임

06

능력, 능력주의 문제는 새롭게 부각된 문제는 아님
신자유주의 체제 변화 결과, 20세기 집단주의 자리에 개인주의가 주류화되면서, 개인의 일상 및 공적 영역의 주요 판단의 지표로서 능력과 공정이 지배하게 됨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은 계급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즉 철저히 개인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음. 오히려 불평등과 현재의 모순을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이자 각종 제도로 노동자들을 분화하고 연대를 가로막고 있음

대량해고 이후 노동시장의 분절화 결과에 노동운동이 대응하면서, 결과적 측면의 모순에만 집중하게 됨

→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일상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에 노동운동의 연대적 가치의 침투나 사회운동의 동화는 매우 제한적임

↓

학교 현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정비되면서, 표면적인 평등교육과 실질적인 특권교육이 병행. 줄어든 일자리와 일자리 질의 하락으로 성장과정의 인간에게 오로지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됨

←

현재 노동현장은 다층의 개인적 이해, 능력으로 묶여지는 다종의 이해관계가 나열된 듯 보임. 전형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는 이러한 물신화된 능력주의의 현실을 반영함